

도내 가구·가전업체 할인 행사

롯데백화점 일부 가전 세일 40%까지... 원목가구 전문점 인까사도 20%까지

선선한 가을철을 맞아 결혼과 이사에 분주한 소비자들을 위해 전북지역 가구와 가전 업체들이 할인행사를 시작한다.

먼저 도내 가전제품 판매업체들이 시즌 행사에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가전매장 코너에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시즌 정기세일까지를 감안해 특정 가전제품 세일을 약 20~40%까지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삼성UHDTV 60인치 TV가 182만원, 삼성 에드위시 세탁기 17kg은 136만원, LG 냉장고(870L)는 389만원에 판매한다.

또 도내 23곳의 롯데하이마트는 '중고보상 특별기획전' 및 '추가 사은품 행사'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기존 제품을 반납하면 최대 50%를 보상받는 중고보상전은 정상이 40만 9,000원의 쿠쿠 전기밥솥을 31만8,000원에, 21만9,000원의 자이클 전기그릴

은 17만9,000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1등급 모델을 구매할 경우 10%(최대 20만원)까지 돌려주는 환원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는 냉장고·세탁기·정수기·안방의자·비데 등 가전제품 구매 시 각 가전제품에 필요한 반찬용기·청소기·세제·전동치솔 등 소형가전제품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내 가구점도 할인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대한민국 1등 원목가구를 지향하는 '인까사 전주점'은 13일부터 다음달까지 '개집 기념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인까사는 행사 기간에 각종 가구를 정상가에서 10~20% 할인에 판매한다.

89만원 상당의 4인 원목식탁세트는 71만원, 135만원 침대(매트리스 포함)는 88만원에, 특가 상품으로 원목거실장 35만원, 1인용 소파와 원목소파테

이블 15만원에 판매한다.

특히 정상이 450만원의 천연누락 가죽소파의 경우 전시상품은 250만원, 기타 천연가죽소파도 165만원부터 판매하며, 콘솔 등도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프랑스 엔틱 가구 '인테리어스' 역시 같은 기간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295만원 상당의 침대(수퍼킹)는 199만원, 130만원의 거실장은 91만원, 423만원하는 8인용 식탁세트는 298만원에 판매한다.

이밖에 전북혁신도시 인근 참고형 가구할인매장 '센트럴가구몰'도 '가을바람 솔솔~' 할인행사를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미 시중가보다 가격이 30% 이상 저렴한 대부분의 가구를 10% 추가 할인에 판매하며, '인터넷보다 저렴한'다는 점과 '도내 어느 곳이든 무료 배송'을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새롭게 선보이는 '다이내믹' 13일 서울시 강남구 송은이트스페이스에서 모델들이 K2코리오의 신규 스포츠 브랜드 '다이내믹'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에코시티자이 2차' 아파트 1순위 청약접수에서 마감

'에코시티자이 2차' 아파트가 1순위 청약접수에서 마감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결과 466가구 모집에 총 3,536명이 청약 접수해 평균 7.59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형은 412가구 모집에 3,154명이 몰려 하반기 에코시티 내에서 분양된 동일 면적 대 아파트 중 가장 많은 청약자를 끌어 모았다.

또 일반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던 중대형 면적인 118㎡형도 무난히 1순위 마감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인기를 증명했다.

앞서 분양한 1차의 흥행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에코시티자이 2차'는 에코시티 내 우월한 입지로

전분주택 오픈 당시에도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전언이다.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0층 7개동 총 490가구(전용 84㎡, 118㎡) 규모로, 향후 2차까지 입주를 마치면 1차 640가구의 합쳐 총 1,130가구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주택형 별로는 ▲84㎡A 260가구 ▲84㎡B 60가구 ▲84㎡C 114가구 ▲118㎡ 56가구로 구성된다.

한편 전분주택은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지구(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17-9번지)에 마련되어 있으며 오는 19일 당첨자 발표 후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당첨자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홈플러스 '뜻밖의 플러스' 확대전개

가성비 성능높은 상품 선배

홈플러스가 가성비 끝판왕에 도전하는 '뜻밖의 플러스' 캠페인을 확대 전개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상품을 찾는 합리적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홈플러스는 그 동안 상품의 품질 강화와 고객의 가격 부담 절감에 기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첫 시작 당시 PB 상품 또는 직수입 상품 위주로 진행됐던 '뜻밖의 플러스' 캠페인을 13일부터 3주간 유명 브랜드

및 NB 기획 상품으로까지 확대해 대대적인 가성비 캠페인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대 이상의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났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은 놀라움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신선 및 가공식품에서 60여 개의 '가성비 대표상품'을 선정해 확대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대용량 기획 상품 NB 또는 유명 브랜드와 사전기획해 만든 신상품 재미 요소를 가미한 상품, 해외 직수입 우수 상품 등 홈플러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뉴시스

'코리아세일FESTA' 전통시장 축제 열기 지속

도내 5곳 종료 6곳은 진행

코리아 세일 FESTA 전통시장 소풍관광축제 열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코리아 세일 FESTA 전통시장 소풍관광축제가 전북지역 11개 시장에서 일정별로 할인판매·경품증정·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사가 종료된 시장도 FESTA 기간내 참여를 이어간다.

현재 행사가 끝난 시장은 전주 남부

시장 익산 북부 시장, 군산 명산 시장, 군산 나운 주공 시장 완주 고산 미소 시장 등 5곳이다.

또 진행중인 시장은 익산 남부 시장, 전주 신중앙 시장, 전주 모래내 시장, 군산 신영 시장, 부안 상설 시장, 남원 용남 시장 등 6곳이다.

이들 행사 참여 시장들은 할인행사, 구매교과 경품권 지급, 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받았다.

특히 전주 남부 시장의 경우 전국 17개 거점 시장 중 하나로 선정, 전통

시장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쇼핑과 문화가 결합된 행사를 선호하기도 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통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 개념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지역 전통시장 고객유인과 활력을 찾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면서 "시장별로 자체 계획한 행사들은 끝났어도 코리아 세일 FESTA 기간에는 참여시장들이 그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농식품부 말산업박람회, 일산 킨텍스에서 16일까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6차산업으로서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말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네 번째로 개최되며 생산, 금융, 시설, 사료, ICT 등 최신 트렌드의 말산업 소개 등 말산업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채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말산업과 말 문화예술의 콜라보로 말산업 관련 사업체에서는 실질적인 판매·

홍보와 방문객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된다.

말 공연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유명 마상체조 아티스트 '자크 페라리'의 공연과 류귀화 작가의 공예전, 윤다인 작가의 말아트 페인팅 등이 열린다.

또한 말산업 관련 직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진로상담 부스를 운영해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마사회 인사과에서도 취업 상담 부스를 운영하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말산업이 한단

계 도약해 말산업 박람회가 세계적인 말산업 종합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배 승마대회 승용마 경매, 국제 재합승마연맹 아시아 포럼 및 장제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한다. 박람회 일반 고객은 무료이며, 단체 고객의 경우 사전에 박람회 사무국에 관람을 신청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제3회 말산업 박람회에는 약 3만명이 관람했는데 올해에는 5만명의 관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1~2가구 증가로 점오키 가구 인기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를 온라인으로 사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 활용성이 높은 '점오키(0.5)' 가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현대리빙가 유통채널로부터 지난 9일까지 '리빙트렌드'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5인용 소파 1.5인용 식탁, 확장형 침대 등 '점오키(0.5)' 가구 품목들의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32.5% 증가했다. 점오키 가구 품목 매출은 리빙트렌드 전체 매출보다 약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젊은 고객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엄지족 잡아라' 대형마트 모바일 서비스 역량 강화

지난 8월 모바일소형 윌란 거래액이 처음 3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대형마트에서도 엄지족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저가 및 빠른 배송을 필두로 온라인몰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대형마트들도 더이상 오프라인 채널만으로는 매출 정체 돌파구를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모바일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경우 ▲포인트 적립 ▲영수증 저장 ▲선물 보내기 기능 등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 앱 전용쿠폰을 통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송 서비스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최근 냉장과 관리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구매 내역 영수증과 연동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품목을 자동으로 설정해 보여준다. 상품 유효기간 3일 전에 알람도 제공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형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보완하겠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도 ▲개인 맞춤형 디지털 전단 서비스 ▲추가 할인혜택 제공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엄지족 잡기에 한창이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